

통합특별시 첫 금고 '운명의 날'...광주은행·농협 '진검승부'

평가위, 오늘 1·2금고 사업자 지정 올해 하반기 '장기 금고 선정' 전초전 공정 vs 지역 환원 양측 당위성 전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을 하루 앞두고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막판 홍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번 금고 선정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올 하반기에 진행될 차기 '장기 금고 선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21일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선정평가위원회는 22일 1·2금고를 선정한다.
이번 금고는 오는 7월 통합시 출범 직후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1금고(일반회계)와 2금고(특별회계)의 주인을 가리는 자리다.
현재 광주시 1금고는 광주은행이, 전남도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어 사실상 '현직 금고지기' 간의 맞대결이다.
이번 선정에 담당할 금고선정평가위원회는 광주시 추천 5명, 전남도 추천 5명, 공명 추천 위원장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신용도, 대출·예금 규모,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를 통해 최종 적격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선정 하루 전인 21일, 양측은 막판 홍보전에 사활을 걸었다.
광주은행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은행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지역 단위농협'의 점포 수와 지역 기여도를 NH농협은행의 실적으로 합산해 평가해 온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출발선부터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과 농협은행을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의 하부 조직이나 지점이나, 독립된 자산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별도 법인이다. 따라서 지역농협의 점포망과 기여 실적을 농협은행의 고유 실적으로 합산해 평가하는 것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금고 지정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맞서 NH농협은행은 '지역 환원과 상생'을 앞세워 여론 다지기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순수 국내 자본 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을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재투자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올해 기준 1천100

억원이 넘는 사회공헌·지역환원 실적과 99%에 달하는 높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강조하며,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오랜 협력 체계야말로 통합특별시의 가장 안정적인 금융 파트너라는 점을 내세웠다.
또 농협은 농업 기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지역은 전국 최대 농도 지역 가운데 하나로 농업인 약 60만명, 조합원 약 30만명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농협은 이러한 지역 기반을 토대로 농업인 금융 지원과 농촌 복지사업, 영농 지원 활동 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임채만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기로 한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해외진출 중기 세무강연회 큰 호응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 첫 활동 세금문제·해결방안 알기 쉽게 설명

광주지방국세청은 21일 평등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기업에 꼭 필요한 세무정보를 설명해 주는 세무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는 국세청이 지난달 구성한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의 첫 활동으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강연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최됐다.
이에 강연회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세금문제, 해외직접투자의 방법과 고려할 세금, 해외투자 관련 각종 자료 제출 의무, 현지법인 청산 시 세금문제, 해외투자 관련 세정지원 등 해외 현지기업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 기업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은성 기자

한전KDN, 美 커뮤니케이션 연맹 어워즈 3년 연속 수상

韓 기업·기관 중 최고 성과 100점 만점에 99점 획득

글로벌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전 세계 기업들을 제치고 지속가능 경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한전KDN은 21일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홍보물 경진대회인 '2025/26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Spotlight Awards)'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을 획득함과 동시에 전 카테고리 통합 '글로벌 종합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는 2001년부터 매년 전 세계 1천여 개 기업·기관이 발간한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해 순위를 공개하는 세계적 권위의 커뮤니케이션 시상식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Platinum), 금상(Gold), 은상(Silver) 등급을 부여한다.
한전KDN이 이번 대회에 출품한 '2025 한전KDN 지속가능보고서(2025 KEPCO KDN Sustainability Report)'는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완성도와 메시지 전달력 면에서 역대급 호평을 받았다.
총 6개 평가 항목 중 ▲창의성(20점)을 제외한 ▲첫인상(30점) ▲전체 서사(10점) ▲비주얼 디자인(10점) ▲메시지 명확성(20점) ▲적절성(10점) 등 5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100점 만점에 99점이라는 압도적 점수로 최고 등급을 거머쥐었다.
특히 이번 수상은 특정 산업군이나 개별 부문에서 1위를 획득한 것이 아닌 출품된 전 세계 모든 보고서를 통틀어 순위를 매긴 '전체 카테고리 통합 글로벌 종합 순위 1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한전KDN은 함께 경쟁을 펼친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을 제치고 대한민국 기업·기관 중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하면 국가적 위상도 함께 높였다.
이번 쾌거로 한전KDN은 3년 연속 LACP 어워즈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으며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 체계와 대외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받게 됐다. /인태호 기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전통시장 활성화 사랑나눔'

1천만원 구매물품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1일 "홀앤쇼핑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전국 5대 권역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광 보건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랑나눔 전달식' 및 상인 대상 e-커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시 일반 모든 성공으로 전통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을 비롯해 송광민 영광군 부군수, 홀앤쇼핑 이현승 중소기업지원본부장, 김동호 영광터미널 상인회장 및 지역 복지기관 대표자 등 8명이 참석했다. <사진>

전달식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시 일반으로 모든 성공으로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영광군 관내 복지기관 3곳에 전달됐다.
임 회장은 "영광터미널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 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을, 지역사회에는 온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인태호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어대어 마음 만나다 문화관광시장

광주말바우시장

말바우시장은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말바우시장'이라는 이름은 말 발자국 모양의 바위(말바우)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그 말바위는 없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 사이 골목을 중심으로 정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광주시 북구청으로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최근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 "골목형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계속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담양, 곡성, 장성, 화순, 순창 등의 주변 시골에서 농민들이 직접 경작한 생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전통작거래 장으로 보다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구분: 인정시장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90-1

개설일: 공식등록일 2005년

- 점포수 : 507개소
- 주요취급품목 : 수산·건어물, 농산물, 식품·음식점, 축산·건강원, 의류·기타
- ◆ 말바우시장 상인회 : 062-262-4082

· 시장면적 : 68,712m²(20,685평)

귀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마음
살가운 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는
1석 3조
혜택을 누리보세요~!

혜택1
대형마트보다
20%나 저렴!

혜택2
은누리상품권
5% 추가 할인!

혜택3
사용금액
40% 소득공제!

착한가격!
신선한 상품!
인심에 더하여 정(情)까지!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북구

광고문의 : 062)650-2099